

관객과의 교감을 새롭게 도모하다, 1주년 맞은 이우환공간 신작 발표

October , 2016

“예술가는 가도 그를 기리는 상은 남초”

여성 미술가의 든든한 지원자 石州 윤영자 선생 영면하다



조각가 석주(石州) 윤영자 선생이 9월 12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한국 1세대 여류 조각가로 활동한 고인은 조각가 윤효중, 윤경철 선생에게 사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조각에 뜻을 두게 된다. 그 후 홍익대에 미술학부가 설립된 1949년에 입학해 졸업을 앞둔 1955년 국전에서 <교육부장관상>과 <대한미술가협회전 (회장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후 국내외 초대개관전 12회, 단체전 600회 이상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행주산성 행주대첩비>, <춘천소양강댐 기념탑>, <남산 다산 정약용 선생 동상> 등이 있다. 고인은 1973년 대전 목원대 초대 미술학부장으로 부임해 30여 년간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으며 1989년에는 국내 유일의 여성 미술인을 위한 '석주문화재단'을 설립했다. 1990년부터 석주미술상을 제정해 회화, 입체, 공예, 평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미술가를 발굴해 지원에 힘썼다. 보관문화훈장, 대한민국예술원상, 서울시문화상, 제1회 미술인의날 '특별공로상' 등을 받았다. 장례식은 9월 18일 고인이 고문으로 있던 한국조각가협회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족대표 윤재원, 석주미술상 수상자 23명의 한국미술협회, 한국여류 조각가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러졌다.

관객과의 교감을 새롭게 도모하다 1주년 맞은 이우환공간 신작 발표

부산시립미술관(관장 김영순) 바로 옆에 자리한 이우환공간이 새로운 작품을 들었다. <관계항-안과 밖의 공간(Relatum: Outside - Inside)>가 바로 그것. 작품 제작식은 9월 3일 이우환공간 조각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 기증은 이우환공간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이번에 기증받은 <관계항-안과 밖의 공간>은 폭 6m, 높이 2.3m에 달한다. 비스듬한 호를 그리는 스테인리스 스틸 판 2장 사이에 자연석이 마주하는 형상을 띠고 있다. 이번 작업은 부산의 어린이를 위한 작업을 선보이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반영되어 설치됐으며 관객과의 적극적인 교감을 도모했다.

한편 신작 발표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도 함께 열렸다. 일본 다마미술대 학장 다테히타 아키라가 '이우환과 그의 예술-글로벌리즘 시대의 만남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진작가 후원 강조

유상덕 송은문화재단 이사장,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수상

유상덕 송은문화재단 이사장(사진)이 <제25회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을 수상했다. 9월 22일 송은아트 스페이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에릭 에더 몽블랑코리아 이사장, 몽블랑 문화예술재단 공동대표인 샘 바더필과 킬 펠라스 이사장이 참여했다. 유상덕 이사장은 1999년부터 송은문화재단에서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전시 및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 이사장은 상금 1만5000유로를 작가들의 예술 교류를 돕는 영국의 펠피나재단에 기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청담사거리 인근 약 1600m² 면적의 터를 확보했으며 에르조그&드무롱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겨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강남에 새롭게 생길 미술관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 미술관은 2019년 완공 계획이다. 한편 유 이사장의 수상을 맞아 재단 지원 사업을 돌아보는 특별전 <돌매(아름)>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석촌호수에 등장한 보름달

공공미술 프로젝트 <슈퍼문>

지난 9월 1일부터 석촌호수에서 개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슈퍼문>이 10월 3일까지 이어진다. <슈퍼문>은 수면에 둥근 조형물을 띄운 설치다. 미국 LA에서 활동하는 새뮤얼 복선(Samuel Borkson)과 아르투로 산도발(Arturo Sandoval)로 구성된 공공미술 그룹 프렌즈위드유(FriendsWithYou)가 추석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한국의 풍속에 착안해 디자인한 작업이다. 지름 20m 크기의 이 조형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조형물 내부에 설치된 7가지 색상의



조명을 밝힌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갤러리 에비뉴엘 아트홀에서는 <슈퍼문>의 제작 과정과 프렌즈위드유의 다른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미술은 삶과 함께'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2016미술주간 열려

2016미술주간 행사가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술 좋아요!'를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미술', '미술의 공공적 가치'를 찾고, '미술에 대한 오해 불식'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공시립미술관, 비엔날레, 비영리전시공간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작가미술장터, 코리아 갤러리 위켄드 등과 같은 프로그램과 연계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과 비엔날레, 각종 행사 단체 등이 100여 곳을 넘는다.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국립립미술관 무료기방은 물론, 미술관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면(미술관 스타그램) 선물을 증정한다. 한편 올해의 미술도시로 선정된 대구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계명대 일대 예술인 작업실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미술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rtweek.kr을 참조하면 된다.